

급할수록 돌아가자



이 민 구

- (안양)평촌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20년도 제26회 법무사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제26회 법무사 시험 합격자 이민구입니다.

수석합격도 아니고, 최연소합격도 아닌 보통의 합격자일 뿐인 제게 처음 수기 의뢰가 왔을 때 많이 고민 했습니다.

수험생 시절 저는 많은 합격수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합격자들은 평범하지 않구나!” 였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생활, 능력, 공부량에 감탄하며 “그렇게 하니까 합격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 건가?” 하며 기소침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드는 단 한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II. 법무사 시험에 발을 들여 놓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무늬만 고시생인 생활을 했기에 당연히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취업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고, 사법시험은 없어진다고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제 인생의 스승님이시고, 은인이신 조광연 선생님의 추천으로 법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모른 채 법무사 수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Ⅲ. 잘못 끼운 첫단추

“모든 시험의 시작과 끝은 기출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무사시험 준비를 시작하며 저 역시 기출문제집을 샀습니다. 1차시험 과목 중 헌법, 상법, 민법은 학교 수업과 사법시험 준비로 체계는 익숙한 과목이었습니다. 위 3과목의 법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지금 생각해 보면 거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사법시험에 비해 쉽네... 금방 합격하겠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읽었던 법무사시험 합격 수기 중에 10년 기출문제만 반복하고 1차시험에 합격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기 덕(?)에 저의 잘못된 판단을 더욱 확신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Ⅳ. 운이 없네(?)

운 좋게(?) 처음 응시한 1차시험에서 커트라인에서 2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노력에 비해 고득점 했습니다. 오전 과목에서 압도적 고득점(?)으로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오후 과목에서 찍은 수많은 문제 중 2문제만 더 맞았어도 합격이었다.”며 불합격의 결과를 운으로 돌리는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1차시험은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며 2차시험 준비를 하는 더 큰 우를 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커트라인에서 2문제 차이 정도라면 2차시험을 준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 등 1차시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의 실력이 절

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운이 없어 2문제 차이가 아니라 운이 좋아 2문제 차이였던 것이죠. 다음 시험에서 오전 과목을 다시 고득점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오후 과목은 더더욱 어느 정도 득점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Ⅴ. 나만의 착각

7월부터 1차시험의 과목은 전혀 보지 않고 2차시험 과목 위주로 공부 했습니다. 1차는 다음해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치른 1차시험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남짓... 저는 또 기출문제만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불합격... 1번째 시험보다 오히려 점수는 떨어졌습니다. 오전 과목도 작년과 같은 고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흔히들 법학공부는 휘발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휘발성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익숙하기에 언제고 고득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헌법, 민법, 상법도 더 이상 비교 우위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Ⅵ. 일시적 반성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라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학원교수님과 실장님의 조언을 구했고, 긴 시간 고민도 해봤습니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반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년 기출문제만 돌려서 합격한 사람이 있지만, 그분은 나와 출발점이 달랐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기본서 한번 읽어보지 않고 기출문제만 보고 합격하겠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법무사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VII. 급할수록 돌아가자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얇은 요약서를 찾게 되고, 짝어서 공부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시험 공부가 학문과 다름을 생각할 때, 그리고 효율성을 생각할 때 그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실패했던 저로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2차시험 공부는 접어두고 1차시험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기본강의 시즌(7월~12월)

익숙하지 않은 과목(민집법, 부등법 등) 위주로 기본서(학원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기본교재)를 차분히 읽었습니다. 1시간에 10~15페이지 정도 읽으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읽는 속도가 느려 그 정도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하루평균 40~50페이지 정도 소화한거 같고, 기본서를 읽고,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고, 마지막에는 기본서만 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본서에 기출된 부분을 체크해 놓았습니다.

2. 집중강의 시즌(1월~2월)

기본강의 시즌과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3. 문제풀이 강의 시즌 (3월~5월)

학원 수업 시간 중 사용하는 교재의 문제를 풀면서 지문별 오엑스 판단을 했고, 틀린 지문, 최신 판례지문, 최신 기출지문을 체크 했습니다.

4. 마무리 강의 시즌(6월)

기본서의 체크된 부분과 문제집의 체크된 부분 위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차교재)

- 헌법 - 이재영교수님 객관식문제집, 수업 시간에 배부하는 모의고사 문제(기출위주)
- 상법 - 하영태교수님 요약교재, 객관식문제집
- 민법 - 이혁준교수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 가등법 - 김지후교수님 요약교재, 객관식문제집
- 집행법 - 김지후교수님 조문판례민집법, 객관식문제집
- 상등법 - 김경중교수님 상등요약자료, 객관식문제집
- 부등법 - 유석주교수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 공탁법 - 이천교교수님 기본서, 객관식문제집

VIII. 1차시험 합격 또 다시 찾아온 자만

시험 당일 정확히 알고 선택한 선지보다는 뭔가 어색한데 하는 느낌으로 선택한 선지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예상 커트라인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2차시험 과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동차 시험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어 당연히 안될 거라는 자체 판단하에 어영부영 보냈습니다(당락과 상관없이 이 시간은 최소한 기본서 1회독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연히(?) 동차에 불합격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자만하는 우를 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차시험은 사법시험과 겹치는 과목이 더 많습니다.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등 모두 익숙한 과목들이었습니다. 재시를 준비하는 기간 기본서는 등한시하고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은 남들보다는 잘 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학원 모의고사만 풀었고, 부등법은 예상논점 30개 정도만 공부했습니다. 등기신청과 민사서류는 기출만 봤습니다. 하루종일 공부에 시간 투자하는 다른 2차 수험생과 달리 하고 있던 학원 알바생활을 재시 2달전인 7월말 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재시 또한 불합격 했습니다. 합격을 기대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의 수험생활이었음에도 불합격의 충격은 컷습니다.

IX. 역시 기본서 중심

다시 1차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부등법과 민집법이 기본서로 정리 돼 있었기에 단 시간에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이때 “1차 시험준비할 때 기본서를 중심으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오후에는 2차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1차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시간 배분을 2월까지 했습니다. 3월부터는 다시 1차 공부 위주로 했습니다. “좀 더 일찍 1차에 비중을 두어야 했나!”하는 후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1차시험은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2차시험 공부를 기본서 위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스스로 2차시험 공부 많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동차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동차시험 결과 커트

라인에서 1점정도 부족했기에 조금만 더 열심히 쓸 걸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 예비순환(10~12월)

이 시기에는 기본서를 차분히 1회독 했습니다. 읽는 속도가 느린 탓에 다시 볼 때 시간을 줄이려고 밑줄 긋기 작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밑줄 긋는 방법이 많이 추천되는 방법이지만, 저는 봐야할 문장 전체에 그었습니다 (다시 볼 때는 밑줄그은 부분만 읽었습니다).

2. 1순환(1~2월)

밑줄 위주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된 쟁점을 기본서에 표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3. 2순환(3~6월)

마찬가지로 밑줄 위주로 기본서를 읽었습니다. 게으른 탓에 매일 실시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여러분은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후회했습니다. 시간 내에 써내는 연습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험문제만 받아 간단한 목차 정도만 작성해 보고 출제된 쟁점을 기본서에 표시 했습니다.

4. 3순환(7~9월)

2순환과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행시, 법원사무관시험 기출문제를 구해 보충했다는 점입니다. 3순환 종료 후 시험전날까지는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했습니다.

(2차교재)

- 민법 - 이혁준교수님 기본서 + 모의고사 + 기출
- 형법 - 이재영교수님 기본서 + 모의고사 + 기출
- 형소법 - 김영환교수님 기본서 + 모의고사 + 기출
- 민소법 - 이혁준교수님 기본서 + 모의고사 + 기출
- 민사서류 - 이천교 교수님 기본서 + 모의고사
- 부동산법 - 유석주 교수님 기본서 + 기출
- 등기신청 - 유석주 교수님 기본서 + 기출

X. 수험생활의 전반

저는 잠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12시쯤 잠자리에 들어 7시 30분 쯤 일어났는데 아침 식사 후 학원에 도착하면 9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의고사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바람직한 수험생활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시반 ~ 12시	공부
• 12시 ~ 1시	점심식사 및 낮잠
• 1시 ~ 6시	공부
• 6시 ~ 7시	저녁식사 및 휴식
• 7시 ~ 10시반	공부

점심 식사 후 20분 정도 낮잠을 잤는데 오히려 집중력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조차 점심식사 후 20분 정도 잤는데 오히려 시험 집중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4~5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 한 만큼 충분히 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7시간 이상 잔 저도 합격했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XI. 고마운 분들

저를 법무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신 조광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고민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한갑석 선생님, 김승호 실장님, 박남수 실장님 등 서울법학원 임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와 교재로 저를 합격으로 이끌어 주신 서울법학원의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응원해 주셨을 아버지, 그동안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못난 오빠 대신 가장 역할을 한 동생 현지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여자 친구 연지에게 많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연지야 믿고 묵묵히 기다려 줘서 고맙워. 앞으로 함께 많이 웃자. 웃을 일 많이 만들게. 많이 사랑해~ 그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